댐 주변 지원현실화 법안 개정을

임실군,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서 촉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5일 전국 19개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댐주변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가진 정기회의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을 함께 공감했다.

임실군은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댐주변 지원사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심 군수는 지난 해 충주시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직을 2년간 수행하다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 임시회의를 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조정 및 조정계수제 폐지 조정건이 상정됐다.

아울러, 이종배 국회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레안'과 전라북도 한완수, 이한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심 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 시 군 구청의 댐 관련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모두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도 심 군수는 임실치즈를 테마로 임실군에서 조성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한 임실N치즈 축제와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18 임실 산타축제'를 알리고, 각종 홍보자료를 배부, 임실군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시군구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강성원 남원시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지방자치발전·지역발전 기초·광역의원 평가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이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실시한 '2018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매진한 기초·광역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상으로, 지난 10월 대상자 신청을 받아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강성원 의원은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발빠르게 해결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오랜 기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농업분야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농업정책개발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온 경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강성원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제6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과 제6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성원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등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이계호 교수 특강

순창 인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희출)가 '태초먹거리로 건강 100세를' 이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열어 군민들의 건강지키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인계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자지위원회 교양강좌의 일환으로 태초먹거리의 저자 충남대 이계호 명예교수를 초청했다. 이날 강좌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을 비롯해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강의장을 가득 메웠다.

이계호 명예교수는 태초먹거리 학교 설립자로 현대산업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과 편리성으로 변질된 현대먹거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인스턴트 식품의 홍수속에서 올바른 먹거리와 생활개선을 통해 건강회복이 필요하다"며 "개인을 비롯해 먹거리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우리 모두가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강의를 주최한 신희출 위원장은 "많은 면민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활습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강좌들을 개최해서 군민문화 발전에 앞장서 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동부권발전사업 속도낸다

동부권발전 특별회계 10년 연장

순창군이 동부권특별회계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의 식품, 관광분야 발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기간 연장과 지원규모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는 2020년 종료예정인 동부권 특별회계를 민선7기 공약과 연계해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매년 6개 시군에 10억이 증액된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식품, 관광분야에서 타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보다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의 사업은 식품분야에 장류식품 클러스터,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사업이며 관광분야로는 섬진강 관광자원개발, 강천산 관광밸리, 수(Water) 체험센터 건립,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등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이 가진 강점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을 얻고 있다"면서 "순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등록 회원 모집

남원시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해 예방중심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2019년 1분기(1~3월) 등록 희망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면 신장, 체성분 및 기초체력 8종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개인별 운동교육, 영양관리, 비만상담 등 복합적인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운동기구 22종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을 운영하고 각 개인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내 체력단련실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화·목에는 운동기구를 활용한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수·금 오전에는 남원시체육회,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한 건강 스트레칭반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력강화 및 유연성 증진을 위한 건강체조, 요가, 소도구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증진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화(620-7987~8)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민건강지도자 24명 양성

임실군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주민건강지도사 24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주민건강지도사들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며, 총 3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80%에 해당하는 24명이 수료를 마쳤다.

교육시간에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에 기여하고자 바르게 걷기의 이론과 실제, 질환별 걷기운동 처방, 신체 테이핑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운동법 등 교육과 실습을 병행했다.

군 보건의료원은 전문강사와 만족도 조사 등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 양성된 주민건강지도자는 농한기 활기찬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은"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건강지도자를 통해 주민 주도 참여형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 다채로운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지도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

남원시는 최근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6개소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추가 설치했다.

시 관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벨은 기존의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는 버튼식 안심비상벨은 신체가 구속되는 경우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에 다소 제한을 받았으나,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남원시는 지난 4월부터 관광단지주차장, 광한루주차장, 공설시장주차장 등7개소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살려 주세요, 사람살려 등 특정 음성뿐만 아니라 비명소리, 폭행, 구타소리 등의 이상 음원에도 반응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범죄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탐지기 7세트를 구입하였으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서, 교통안전교육·설명회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5일 남원시 노암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50여명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습관적인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이륜차나 사발이 등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교통안전가이드 판소리 영상 및 사고 동영상 등을 시하며 노인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지난 8주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을 일깨워 왔으며, 앞으로도 야간에 밝은 옷 입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